



| 의학학술지 온라인 개방에 대한 심포지엄 • Synapse를 중심으로 • |

2008

# KoreaMed의 포털사이트 개방의 현황과 비전

박 명 재 |  
의편협 정보관리위원



## ❖ 머리말

'KoreaMed의 포털 사이트'라는 용어는 의편집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 제공처라고 정의 내리고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려고 한다.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한 군데서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데 KoreaMed 포털은 아직 그런 수준의 포털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학술지 정보와 편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범위를 좁혀야 한다.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집)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의학 학술 문헌과 편집에 대한 내용으로는 독보적인 것으로, 적어도 국내에서는 어디서도 이런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최근 다른 분야 학자도 우리나라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때도 의편집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조하는 것을 보면 이미 학술문헌과 편집에 대한 내용에서 의편집은 국내에서 가장 유용한 내용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KoreaMed 내에서 이중 게재에 대한 조사 연구 논문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에 발표하고, 이 논문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도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 발표되어서, 의편집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연구에 필요한 database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모두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현재까지의 모습을 정리하고 비전을 정리하려고 한다.

## ❖ KoreaMed의 포털 사이트 개방의 현황

KoreaMed는 초기부터 개방(open access) 정책을 폈다. 1997년부터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영문 초록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이전의 내용도 단체에서 보내주기만 하면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추가 작업을 하여 이것을 KoreaMed Retro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한 KoreaMed를 기반으로 톰슨로이터사의 Web of Science 와 같은 KoMCI Web을 개발하여 2000년도 이후의 각각의 논문은 누가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KoMCI Journal Web을 개발하여 톰슨로이터사의 JCR 처럼 각 학술지의 인용도지수를 계산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두 가지는 의학회의 지원을 받은 것이나 의편집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이고 한 서버에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다루는 KoreaMed Synapse는 미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 Central(PMC)을 구현한 전문

또는 초록 및 참고문헌의 XML 데이터베이스로 개방잡지를 구현하는 국제 표준을 잘 지킨 것이며 더불어 DOI의 Landing page를 구축한 것이다. 최근에 개발한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은 학술지 서지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역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수준의 다양한 출판 및 발행처에 대한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물론 1996년 의편협을 창립할 때, 모든 국내 학술지가 PubMed 및 SCI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런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굳이 우리 손으로 다듬어 가공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의 20%가 국제적인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의학 정보를 우리나라의 연구자 뿐 아니라 세계의 연구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런 노력이 필요하였고, 처음부터 영문으로만 제공한 것이 결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예를 들면 코크레인 데이터베이스의 각국의 의학 학술데이터베이스에 한국은 KoreaMed만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학술문헌 자체의 정보 뿐 아니라 편집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이 워크숍 자료 및 게시판 자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최근에 관심이 높아진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내용 역시 의학 학술지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도 초판부터 번역을 하여 제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외 약어 등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 의학 용어 검색 데이터베이스 설치, 의학학술지 출판사의 목록, 국내 의학학술지평가 기준, 여러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 방법 등등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잘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정보들은 대개 국문으로 제공하지만 가끔 영문으로 된 제목을 외국에서도 읽고 의편협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 지를 이해하고 질의하기도 한다.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의편협이란 조직은 매우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개방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일을 외부의 지원 또는 정보위 지원 없이 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방대한 일을 의사 사회 및

보건의료 사회의 전문가의 힘으로 단독으로 꾸려 나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개 외부에서 가장 흔히 받는 질문은 “재정은 누가 지원하는가?”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단체의 힘과 전문가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 KoreaMed 포탈이다.

## ❖ KoreaMed 포탈의 비전

의편협의 비전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면서 나아가서 우리 의학 정보가 국제적으로 더욱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KoreaMed Synapse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려고 한다. 영문 학술지는 모두 PubMed Central에 등재 가능하도록 계속 XML 작업을 해 나가고, 국문 학술지는 비록 PubMed Central에 등재가능하지는 않지만, DOI를 모두 부여 받고 국제적인 학술지 유통망에 포함되도록 독려할 것이다. 아직은 의편협 회원 학술지 가운데 KoreaMed 등재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한 DOI를 논문마다 새기지 못한 것도 있으나 1-2년 내 모든 회원단체 학술지가 KoreaMed에 등재되도록 지원하고, 모든 KoreaMed 논문은 DOI를 새길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DOI landing page 작업에는 약간의 경비가 들기는 하나 자신의 논문이 국제 사회에 유통되는 지름길이므로 저자의 부담을 늘린다고 하여도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미 대한기생충학회 같은 경우는 영문 발간한 것은 모두 PMC XML 작업을 하고 창간호부터 모든 논문에 DOI를 붙여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British Medical Journal은 1840년대 발행한 창간호부터 모두 PMC XML 작업을 마치고 모두 PMC에 올랐다. 즉 과거의 업적도 최근까지 인용을 받도록 작업을 완비한 것이다. 자신의 학술지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과 또한 경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대한기생충학회와 같이 창간호부터 DOI 작업을 하겠다는 학회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의편협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에 Google Scholar로부터 제안 받아 추진하는 KoreaMed Archiving은 의편협 학술지를 회원단체에서만 원한다면 모든 내용을 스캐닝하여 Google Scholar와 의편협이 공유하는 안이다. 이런 제안을 의편협이 제안 받은 것만 하여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세계 유수한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Google Print

사업을 벌이는데 그 대상 중에 의편협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Google Scholar 비영리 사업으로 학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인용될 확률을 크게 높일 것이다. 그 까닭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검색에서 Google Scholar를 제일 먼저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이제 우리나라 학술지가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 Google Schola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즉 학술지의 국제적인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Google Scholar가 모든 색인 데이터베이스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의편협은 이 Google Scholar와 함께 추진하는 KoreaMed Archive 사업에 많은 회원단체가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또한 이런 여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XMLink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회가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회사를 통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여러 편집인의 꿈인 PubMed, Web of Science 또는 SCOPUS 등의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를 더 앞당길 수 있다. 물론 학술지 자체의 편집의 질 향상, 수준 높은 논문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회원단체의 편집인과 발행인이 책임이지만 개개 단체 수준에서 다루기 힘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분야는 의편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신뢰하고 맡기면 앞으로도 계속 국제 수준의 내용으로 지원할 것이다.

## ❖ 맺는 말

지난 13년간 설새없이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여 작업을 해 온 것만 하여도 대단한 일이라고 자부하지만 또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와 또 작업을 하여야 할지 알 수 없다. DOI 나 PMC 와 같은 내용은 창립 당시에는 개념조차 들어보지 못하던 것인데 지금은 매우 보편적인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개방 잡지(Open Access Journal)에 대한 것도 활발하게 논의를 하여 앞으로 학술지 시장은 개방잡지가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국제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면서 앞으로는 국

제적인 학술지의 흐름을 주도할 만한 좋은 안을 의편협이 내어 앞서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집인이 의편협의 워크숍 뿐 아니라 국제적인 편집인 모임에도 전공분야 학회에 참석하듯이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고 편집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으로 보았을 때, 전문 편집인이 많이 등장하기에 충분할 때이다. 학술지 편집도 공부를 하는 전문 분야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의편협에서도 편집인을 위한 여러 행사를 열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